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0월 14일 · 제327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무역자유화,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여
2. DSV, UTi 인수 협상 완료
3. MENA Infrastructure Fund LP, 이집트 AICT 지분 매각
4. 파나마 운하, 갑문에 누수 발생

| 물류시장동향 |

1. OECD,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탄소세 제안
2. CEVA, 영국 신규 물류창고 건립

| 공지사항 |

1.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시장동향

무역자유화,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여

- 최근 5년간의 논의를 거쳐 미국, 일본을 포함한 12개 환태평양 국가가 참여하는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)가 정식으로 체결됨
 - TPP는 산업제품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참여국간 지적재산권, 경쟁, 환경, 노동법 등에 관한 새로운 국제 표준 도입까지를 포함하고 있음
 - 아직까지 미국내 정치적 문제, 세부적 사항의 추가적 협상 등이 남아 있지만, TPP 참여 국가는 전 세계 GDP의 약 40%를 점하고 있으며, 1994년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등 3국이 체결한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 이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임
- 2015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2개의 지역무역협정(Regional Trade Agreement)이 실질적으로 발효 중에 있으며,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FTA는 2005년에 ASEAN 10개국과 중국간에 체결한 FTA임
 - ASEAN과 중국간 FTA 체결 이전에는 중국의 대ASEAN 수출입 증가율이 ASEAN 이외 국가와 동일한 연평균 17% 수준이었으나, FTA 체결 이후 1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9%를 기록
 - 중국의 대ASEAN 수출입 증가율에서는 FTA 전후 큰 차이가 없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ASEAN을 제외한 국가와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%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
-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까지만해도 1985년 이스라엘, 1994년 캐나다, 멕시코 등 단 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, 200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FTA 체결을 통해 TPP 체결 이전까지 20개 국가로 확대했음
 - 미국은 ASEAN-중국간 FTA 사례와는 달리 비FTA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큰데, 그 이유는 비FTA 국가인 중국이 미국의 컨테이너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약 30%에 달하기 때문임
 - 반면, FTA 체결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%에 불과하지만,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수출입 컨테이너 성장률에서 비FTA 국가를 앞서고 있다는 것임
 - 2013년 대비 2014년 실적 기준 FTA 체결 국가와의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은 약 10% 수준이지만, 중국을 포함한 비FTA 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4~8% 수준임
 - 이러한 FTA 체결 국가와의 컨테이너 운송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, 향후에도 비FTA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전후 국가 간 컨테이너 수출입 기종점 통계 확보의 어려움과 교역량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, FTA 체결을 상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
 - 따라서 국내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충분히 고



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자료 : <http://ciw.drewry.co.uk>, 2015.10.

김근섭 부연구위원
051-797-4662, gskim@kmi.re.kr



DSV, UTi 인수 협상 완료

- DSV와 유티아이월드와이드(UTi)의 합병협상이 2015년 10월 완료되었음
 - 양사의 합병논의는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되었고, 외부에는 2014년 말부터 알려졌다
 - DSV가 UTi의 주식을 주당 7.1달러에 매입할 예정이며, 총 거래금액은 13억 5,000만 달러에 이릅니다
 - 양사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계약을 승인했으며, 2016년 1사분기까지 합병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
 - UTi는 DSV의 100% 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
- DSV는 2014년 기준 3PL 기업 순위 6위이며, UTi는 20위 기업임
 - 2014년 DSV의 매출액은 약 87억 달러, UTi의 매출액은 42억 달러이며, 양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약 130억 달러로 5위 기업인 C.H. 로빈슨의 13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임
- 이번 계약은 DSV의 글로벌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, DSV는 전통적으로 M&A를 통해 성장해 왔음
 - ※ KMI국제물류위클리 제297호(2015.2.25.) 참조
- 합병기업 기준으로 고용인력은 4만 4천명, 진출국가는 84개국에 이르며 사무실 848개, 물류시설은 339개소에 달함
 - 모든 분야에서 합병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, 특히 항공·해상 부문이 합병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, 이번 합병을 토대로 DSV는 진정한 글로벌 3PL 기업으로 발전하고 유럽 이외 지역에서의 육상운송도 확대할 계획임
 - 기존 DSV 매출의 80%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에 반해, 합병기업은 유럽, 중동 및 북아프리카 61%, 아메리카 17%, 아시아태평양 16%, 사하라 이남 6%로, 권역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되었음
- UTi는 2015년 7월 31일 기준, 직전 12개월의 매출액 39억 달러, 조정 EBITDA 6백만 달러의 기업으로 직원수 2만 1천명, 58개국, 3백개 사무실 및 2백여개 물류센터를 보유한 기업임
 - 북미 지역에 강점이 있고 남아프리카의 선도물류기업이며, 아시아-태평양과 유럽에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

자료 : www.dsv.com, 2015.10.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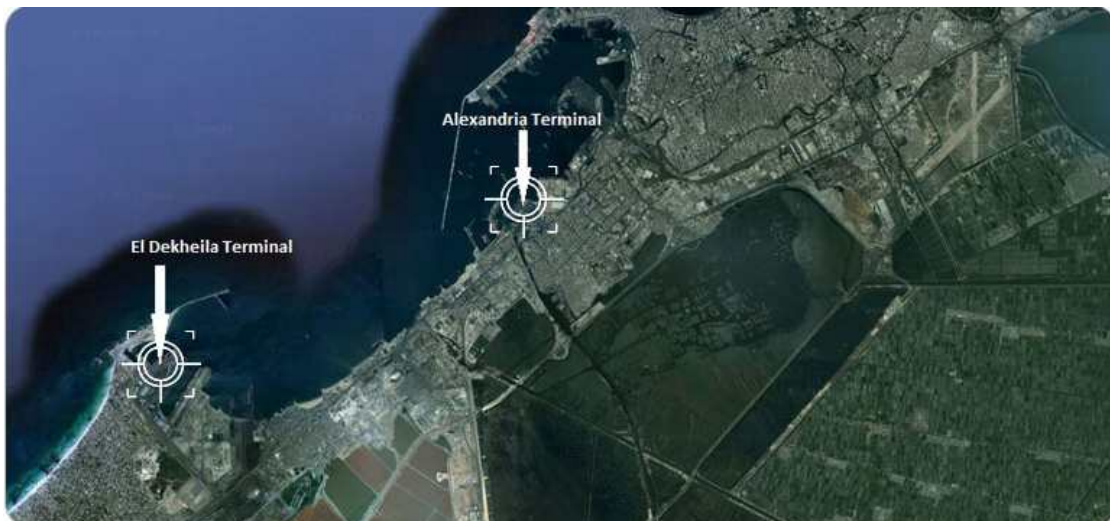
송주미 전문연구원
051-797-4773, jmsong@kmi.re.kr



MENA Infrastructure Fund LP, 이집트 AICT 지분 매각

- MENA Infrastructure Fund LP는 이집트의 Alexandri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s(AICT)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
 - MENA Infrastructure Fund LP는 HSBC(홍콩상하이은행), 파야르캐피탈(Fajr Capital, 두바이 소재 투자회사), Waha Capital(아부다비 소재 투자회사)의 자본에 의해 2007년 설립된 중동, 북아프리카, 터키 지역(MENAT) 중심의 인프라 투자 및 펀드 매니징 기업임
 - MENA는 현재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(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)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관리하고 있음
- AICT는 이집트의 주요 상업항만으로 지중해 지역에 있으며, Alexandria와 El Dekheila 두 개의 터미널로 구분되며 HPH(Hutchison Port Holdings)가 운영하고 있음
 - 알렉산드리아항만공사(APA, Alexandria Port Authority)에 따르면 Alexandria항은 기원전 2000년경 형성된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항만으로 이집트 대외 무역의 60% 이상을 처리하는 주요 항만임
- MENA는 지난 2008년 4월 AICT 주요 지분의 일부를 인수했으며, 최근 전체 보유분의 33%를 매각하기로 했음
 - HSBC가 관리하고 있는 이 지분은 투자자들로부터 매각에 대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, 이번 매각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음

AICT의 위치



자료 : www.aict.com, www.infrapppworld.com, 2015.9.29.

손보라 연구원
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



파나마 운하 갑문에 누수 발생

- 파나마 운하 당국(ACP)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장공사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밝힘
 - 파나마 운하 당국은 태평양측의 신설 갑문에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, 확장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누수가 발견된 갑문 외에도 조사 및 보강을 시행할 것이지만 기존의 완공기간인 '16년 4월까지 본 신규 갑문공사가 차질 없이 완공 될 것이라고 밝힘



파나마 운하 갑문 보수 현장



파나마 운하 갑문 누수

자료 : www.gcaptain.com

- 신규 갑문공사를 맡은 컨소시엄[the Grupo Unidos Por el Canal(GUPC)]은 코콜리(Cocoli)측 갑실의 중단과 하단부분에 누수가 발생했으며, 본 누수는 갑실에 물을 채우는 테스트중 갑문의 철근이 영향을 받으며 발생됐다고 밝힘
 - GUPC는 현재 발견된 코콜리측의 세 번째 갑문의 틈 외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틈에 대해 재조사와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방의 일환으로 대서양방향 아구아 클라라(Atlantic-facing Agua Clara)측 갑실 쪽도 재조사 및 보강을 시행하겠다고 밝힘
 - 또한 GUPC에 따르면 갑문의 누수로 완공시기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지만, 파나마 운하 당국은 상기 문제에 대해 GUPC에 포괄적인 보고서 및 확인서를 요청한 상황이며 본 보고서는 본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과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힘
- 파나마 운하 당국은 신규 갑문공사와 보수에 필요한 모든 책임은 전부 GUPC에 있다고 밝히며, GUPC는 향후 완공 시까지 진행되는 공사와 보수에 대해 계약 상에 명시된 품질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5.10.1.

고재성 연구원
051-797-4776, jsko@kmi.re.kr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OECD,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탄소세 제안

- OECD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세(carbon tax) 방식을 제안함
 -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는 크게 기술적, 운영적, 시장기반적 측면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
 - 기술적 조치인 EEDI와 운영적 조치인 SEEMP는 현재 적용 중에 있으며, 시장기반조치(market based measure)는 논의 중에 있음
 - IMO 내 시장기반조치로 제안된 방식 중 탄소세(carbon tax), 탄소배출거래제(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) 등이 대표적임
 - 탄소세는 일정 금액을 선박 벙커링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, 행정적으로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
- 탄소세 부과를 통해 발생한 기금은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 가능
 - 탄소세로 발생한 수익은 UN GCF(Green Climate Fund)의 재원으로 활용가능하며,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함
 - Transport Forum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탄소세 부과금액으로 CO2톤 당 25달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

자료 : www.joc.com, 2015.10.12.
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CEVA, 영국 신규 물류창고 건립

- SCM 서비스를 제공하는 CEVA사는 영국 패션사인 Coast, Karen Millen, Oasis, Warehouse社와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
 - CEVA사는 향후 10년간 패션사들의 752개 매장에 유통, 전자상거래, 국제운송, 4PL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- 서비스 제공을 위해 CEVA사는 영국 옥스퍼드 주에 25,000m² 규모의 반자동 시스템이 구축된 창고를 건립할 예정임
 - 새로 건립될 창고에서 2,000만 개 품목이 처리되며, 3만 개의 품목의 재고관리가 가능함
 - 또한 창고건립으로 330명의 고용이 창출됨



자료 : <http://3pl4pl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>, 2015.10.09

김은미 연구원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 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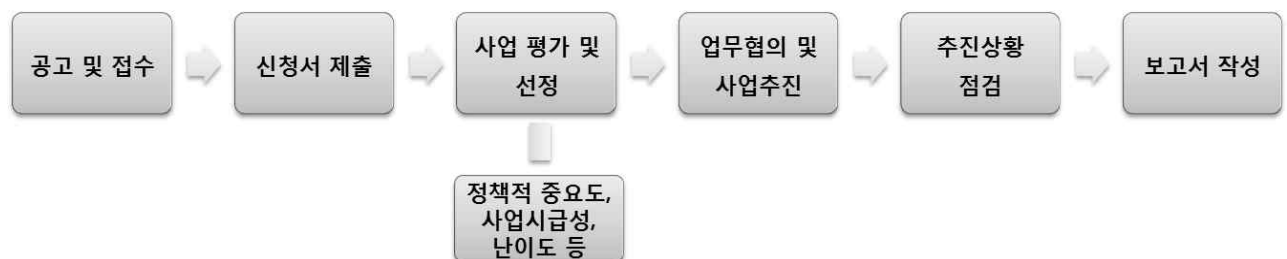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 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시급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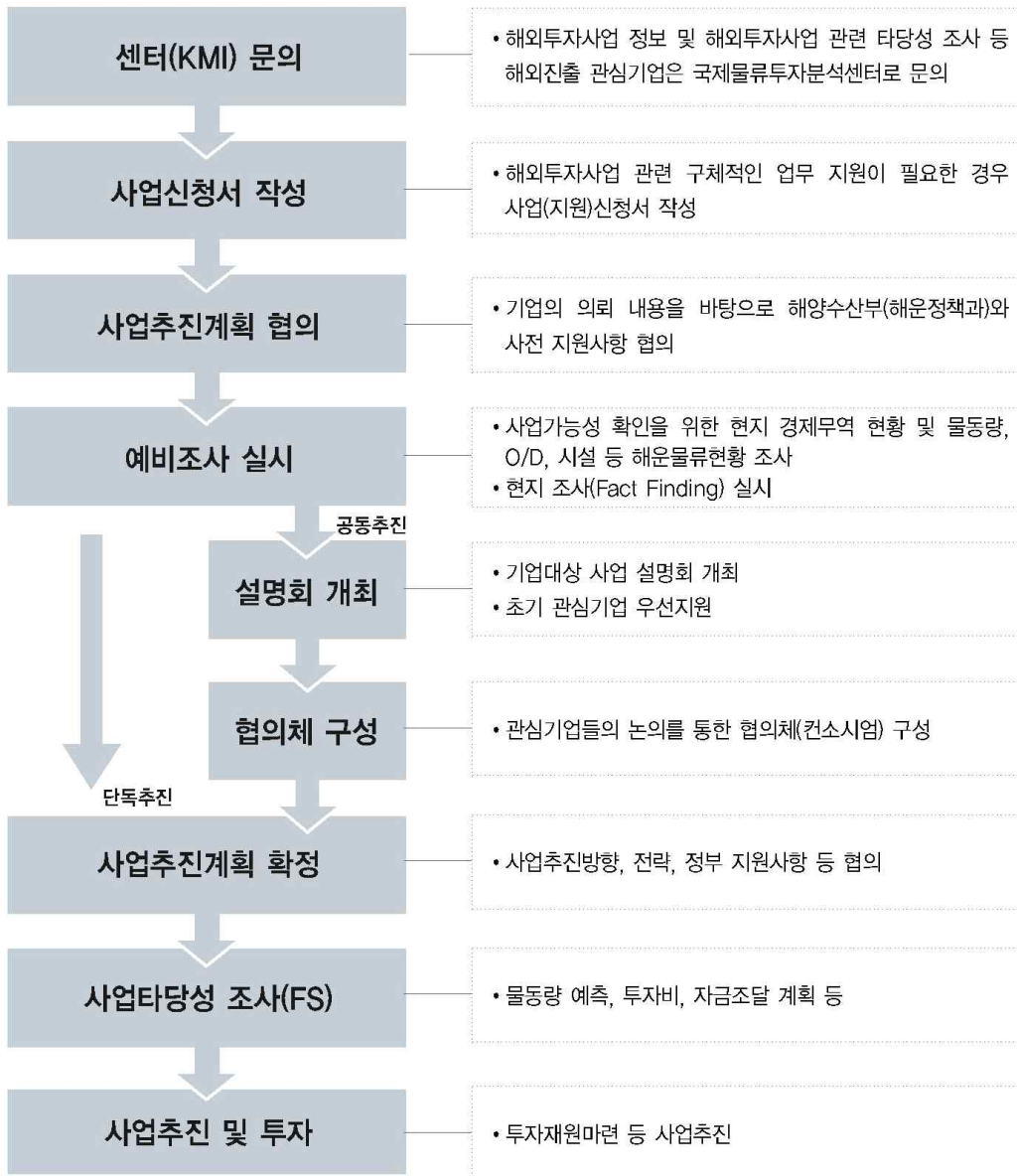
별첨 2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조사대상 사업개요	사업명			
	국가/지역			
※ 별첨 자료요청 (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·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· 사업의 목적 · 사업 세부내용 (대상지, 사업 분야, 사업규모, 사업방식 등) · 사업추진계획 · 현지시장 조사계획 · 기타 현안사항				
지원요청 내용	※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첨부서류 목 록	※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			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